



글로벌 특별 기획전 -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

## 국립대구과학관에서 만나는 2500년 전 그리스 과학

7월 1일~8월 31일,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 '유레카'  
한국국학진흥원 협력 '전통과학 전시코너' 눈길



국립대구과학관이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준비한 글로벌한 과학 선물 두 번째!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 '유레카'> 를 주목해주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는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 '유레카'는 그리스 카타콜로에 위치한 코스타스 코사나스 과학 박물관(The Museum of Ancient Greek Technology Kostas Kotsanas)으로부터 고대 그리스 발명품을 재현한 전시품 54여점을 후원받아 구성된 전시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철학과 예술로 잘 알려져 있어 '과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요, 아르키메데스, 헤론, 필론, 피타고라스 등과 같은 걸출한 과학자들이 모두 고대 그리스인이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기원전에 이미 '로봇', '자동화', '공기역학' 등의 개념을 생각해냈답니다.

이처럼 이번 전시가 놀라운 점은 그 옛날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한 과학원리가 현대 과학기술에 적용되는 과학원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2500년 전, 그리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번 특별전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 '유레카' 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볼거리, 바로 '전통과학 전시'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국립대구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고대 그리스 과학 발명품과 견줄만한 우리나라 전통 과학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코너 '하늘과 땅, 사람을 잇는 과학기술' 을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동서양의 과학기술 원리의 차이점과 유사점도 체험해보세요.

올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특별한 무언가' 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국립대구과학관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 '유레카'는 어떠세요?

### <고대 그리스 특별전 대표전시물>

필론의 자동 하인	재단에 재물을 바치면 자동으로 열리는 신전의 문	플라톤의 알람시계
 <p>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작동한 로봇</p>	 <p>세계 최초의 빌딩 자동화</p>	 <p>플라톤이 발명한 유압 알람시계로 인류 역사 최초의 알람 장치</p>
프톨레마이오스의 천구	피타고라스의 컵	횃불 신호와 신호 시설